

‘복고 수사극’ 화끈·통쾌함 계속 통하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등 풀지 못한 과거에 대한 ‘공동체적 죄의식’은 타임슬립이나 과거와의 교신을 활용한 복고 수사극으로 발현된다.

최종화 12.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며 김은희 작가 대표작 반열에 오른 tvN ‘시그널’ (2016)을 필두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은 OCN ‘터널’ (2017), 그리고 최근 시작한 OCN ‘라이프 온 마스’까지 복고 수사극들은 물론 작가와 연출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흑평을 듣는 일이 없다.

비슷한 포맷과 사건이라도 늘 새롭게 관심을 받고, 시청자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도록 만든다.

작가조차 언제 시즌2 제작을 기대한다고 밝힌 ‘시그널’은 1989년의 순경 이재한 (조진웅 분)과 2015년의 경위 박해영 (이재훈)이 알 수 없는 현상에 의해 무전으로 교신하게 되면서 강력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DNA 대조 등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없던 시절, 박해영의 무전은 사건을 해결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지는 넘치지만 기술이 부족해 범인을 잡지 못한 당시의 수사관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원초적 욕망이 담긴 설정인 셈이다.

이에서 다른 에피소드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대도 조세형, 성수대교 붕괴사고,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모티프로 한 것이라 현실감을 더해 시청자들도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시그널

‘시그널’·‘터널’ 등 인기 이어

‘라이프 온 마스’ 시청자 공감

실제 사건 모티브 몰입감 높아

여기에 김은희 작가 특유의 촘촘하고 탄탄한 필력과 김원석 PD의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지면서 이 작품은 그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고 최근 일본에서도 리메이크작이 방송 중이다.

지난해 방송한 ‘터널’ 역시 낮은 시간대 방송에도 시청률 6%를 기록, OCN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리에 종영했다.

이 작품은 1986년 여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던 형사 박광호 (최진혁)가 터널에서 타임슬립해 2016년으로 점프,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며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범죄 수사극이다.

‘시그널’처럼 이따금 무식하게 보이기도 하는 옛날 형사 박광호와 최첨단 수사력을 자랑하는 형사 김선재가 협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광호가 아예 현대로 넘어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옛날 형사가 현대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특유의 집념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유머와 통쾌함을 동시에 줬던 게 특징이다. 또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점은



터널

현실감을 높였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라이프 온 마스’는 2006년 영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했지만, 형사의 타임슬립이란 설정 때문에 원작보다 뒤늦게 탄생한 ‘터널’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시청률 추이를 보면 1회 2.1%에서 2회 바로 3.1%로 뛰어올랐고, 시청평 역시 좋은 편이라 앞으로 가 기대된다.

‘라이프 온 마스’는 ‘터널’과 반대로 2018년의 형사 한태주 (정경호)가 1988년으로 건너뛰어 육감과 몸으로 수사하는 강동철 (박성웅) 등과 협업하는 포맷이다. 냉철하고 꼼꼼한 한태주가 법도 절차도 없이 무식하게 부딪히지만, 그만큼 속 시원하고 화끈한 수사 스타일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원작이 있지만 88서울올림픽 배경부터 여성 연쇄 살인사건까지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현지화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충격을 준 원작의 결말을 따르지, 원작 이후 선보인 스피노프의 세계관을 따를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렇듯 복고 수사극들이 꾸준히 나오고 또 호평받는 이유는 역시 ‘공감’의 힘이랄 수 있다.

‘라이프 온 마스’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으로 사건 해결을 원하는 본능과 호기심을 주는 수사극이란 포맷에,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복고적 요소가 결합하니 공감력이 높아진다”며 “‘시그널’과 ‘터널’도 그렇지만 특히 ‘라이프 온 마스’는 1988년 배경을 디테일까지 살려 현지화에 성공하고 몰입도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라이프 온 마스

“고민해결 언니들에 맡겨봐”

올리브 ‘밥블레스유’ 21일 첫 방영

최화정·이영자·송은이·김숙 출연

‘밥’으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언니들이 찾아온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맛있고 먹고 말하는 언니들인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이 ‘밥블레스유’로 시청자들 앞에 선다.

개그우먼 송은이(45)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올리브 ‘밥블레스유’ 제작발표회에서 “제가 언니들의 밥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편지를 들었습니다”고 웃었다.

송은이는 “제가 네 명 중 가장 못 먹는다. 학창시절 도시락 빨리 까먹는 게 습관 돼서 빨리 ‘때려먹는’ 스타일인데, 최화정·이영자 씨는 오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다”고 덧붙였다.

‘밥블레스유’는 올리브와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공동기획으로, 전국에서 배달된 ‘애매하고 사소한 생활 밀착형 고민’들을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줄 예정이다.

네 명의 언니들은 서로 ‘질천’이라 호소도 적잖았다. 송은이는 “세수 안 한 눈곱 낀 얼굴, 이에 고춧가루 낀 모습을 보여주면 뭘 만큼 허물없는 사이다. 함께 한세월이 오래돼서 지금 네 명의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며 “네 명이 함께 하는 것이 꿈 같다”고 말했다.

네 명을 모은 것도 ‘예능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송은이다. 그는 “‘비보터비’에서 최화정과 이영자 씨 ‘먹방’ (먹는 방송)이 화제가 됐었다. 김숙 씨가 이 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다”며 “‘밥블레스유’ 안에서 저 출연진보다는 제작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고민 던져드리고 토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이는 이어 ‘밥블레스유’가 TV로 온 데 대해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이 콘텐츠를 올리브에서 선택해줬다는 것이 우선 성공이다”며 “이후는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비밀보장’이 고민을 들어주면서 시작했듯, ‘밥블레스유’도 많은 분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유쾌하고 즐겁게 먹는 것으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숙도 “늦이 밥을 가끔 먹는 사이인데, 밥을 네 시간씩 먹는다. 뷔페에 가서 밥을 먹은 후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네 명 모두 행복해 보였다”며 “밥 먹으면서 고민상담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 콘텐츠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다”고 프로그램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1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별이 떠났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너도 인간이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다큐 공감	20 생생정보 스페셜	30 가재 낭만 고향	
2	40 팔도밥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프리파라 3 4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55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1 대 100 (재)	05 알로리 MBC 다크프라이미 <청년 농부 2부 미래를 몰다>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5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1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프리뷰쇼 미러볼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00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8 러시아월드컵 <H조, 일본·콜롬비아>
8	25 내일도 맑음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콜롬비아·일본, 조별예선 H조>	0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일본·콜롬비아>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슬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폴란드·세네갈, 조별예선 H조>	0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폴란드·세네갈>	10 2018 러시아월드컵 <H조, 폴란드·세네갈>
12	30 독립영화관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저들백이 김자찌개와 들개 도토리묵무침>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터키 결혼식, 케슈케크와 바를라바>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3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40 뽀찌미(재)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30 몬가트	14:30 미니특공대 X	20:40 세계테마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15 파프리카	<바람의 계곡 2부 오지의 여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5원소, 문명의 기원>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23:55 뽀찌미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강인한 정신력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48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60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72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8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52, 01	42년생 생산적인 정황이다. 54년생 진솔함이 효율적인 국면에 이르러 한다. 66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78년생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겠다. 행운의 숫자 : 11, 36	37년생 과욕만 자제한다면 결과는 양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49년생 당면 과제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61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73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85년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행운의 숫자 : 94, 56	39년생 결정을 내렸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51년생 다시 한 번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63년생 원천 봉쇄하라. 7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들여져 볼 필요가 있다. 87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6, 75	40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어적이다. 52년생 후회할 일은 아예 만들지 않음만 못하다. 64년생 소담대실 하지 말라. 76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 가지 않는 것이 낫다. 88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45	41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자. 53년생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65년생 지난해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77년생 용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89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70, 15
午	未	申	酉	戌	亥
43년생 학습고대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55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67년생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91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웃고를 하는 셈이다. 행운의 숫자 : 12, 23	44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56년생 밤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68년생 삼사일언 하자. 80년생 부딪음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92년생 흥이 변해 갈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5, 92	45년생 별 비화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69년생 내용이 알차 아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요한다. 81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판 하지 않는다. 93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59, 32	34년생 근년에 충실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46년생 부담스럽다면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 58년생 합당한 것만을 찾기는 힘들다. 70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는 불안전하다. 82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제가 절실한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57, 84	35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47년생 함께 하는 것이 길하다. 59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71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라. 83년생 교제 해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1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